

# 대한민국 탑 EBS 영어 연계 자료, 주간 KISS EBS!

## ★ **편저자**(Shean.T)

가장 핫한 수능영어 자료, KISS EBS 저자

떠오르는 핑작, Masterpiece 모의고사 저자

대치오르비, 대치다원교육 출강

서울대 경영대학원, 외대 영어통번역, 통역장교 출신

\* 검토: Hyun jin

\* 디자인: 이채현

## ★ **자료 소개**

명실공히 대한민국 탑 EBS 영어 연계 자료, KISS EBS입니다. 주간 KISS EBS는 여전히 EBS 연계 파워가 강력한 수능영어에서, EBS 연계 교재로 '영어 실력'과 '적중 버프'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쟁취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특히 영어는 강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독학'을 통해 본인이 어휘를 암기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영어 절평시대에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주간 KISS EBS는 매주 공부할 수 있도록 EBS 연계 자료를 1주차씩 구성해 전국의 독학생들과 수업자료가 필요한 강사 분들에게 최고의 EBS 영어 자료를 제공합니다. SKY캐슬 예서의 영어쌤 수능 자료와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EBS 영어 본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자료에는 도표, 광고, 3문제 장문을 제외한 모든 지문 수록).

## ★ 자료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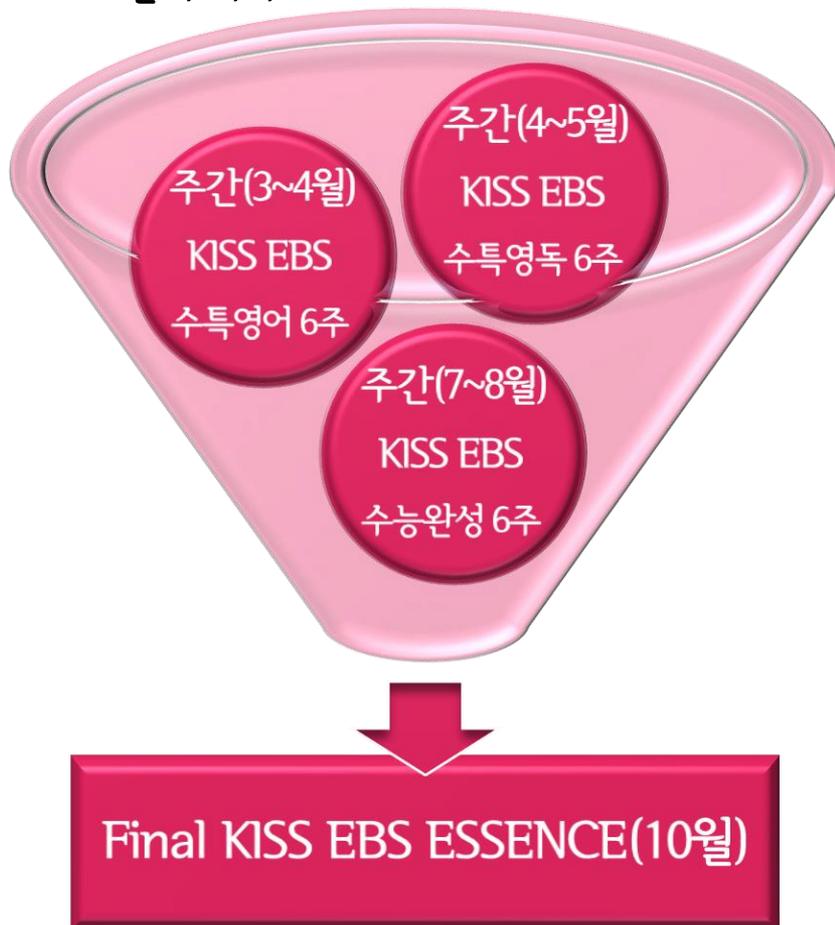
\* '평가원급' 변형 문제 매주 제공! KISS EBS의 문제 변형은 양산형이 아닙니다. 한 지문을 어법, 어휘, 빈칸, 순서, 삽입으로 의미 없이 변형하는, 변형을 위한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평가원 변형 문제 퀄리티가 나오는 지문만 변형하고, 그 지문을 평가원 관점에서 본 하나의 변형만이 존재합니다.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 지문은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형한 지문은 '별표'로 표시해 사실상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중요도를 표시 하였습니다. 다만 '주간' KISS EBS에서는 고3 학생들을 고려해 킬러 내신 변형 문제 퀄리티가 나온다면(평가원에서 내기엔 '조금' 아쉬워도) 변형하였습니다. 파이널 KISS EBS ESSENCE 선별에서 이 문제들은 빠질 것입니다. 누구나 평가원급, 평가원급,하는데 정말 평가원급이었던지는 [sheant.kr](http://sheant.kr)에서 적중 및 후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문 세 줄 요약, 변형포인트 및 팁, 그리고 어휘 정리까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션T의 Summary입니다. 역시나 요약을 위한 요약이 아니라, 지문을 제대로 '이해'한 뒤 션T만의 언어로 센스 있게 요약합니다. SheanT's 변형포인트에는 변형문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주목할 만한 어휘나 기타 코멘트가 들어있습니다. 어휘 또한 EBS VOCA에서 가져온 것 1도 없이, 수능영어 전문가 션T가 지문에서 '가장 수능영어에 중요한 단어들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어휘들에 대한 테스트지도 제공합니다!

\* 통번역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직독직해! EBS 교재 뒤에 있는 해석을 보고 가우뚱한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통번역 전문가인 션T가 직접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직독직해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은 물론, 션T의 해석을 가리고 본인이 직접 해석한 뒤 비교해보면서 영어 해석 실력이 일취월장 할 수 있습니다.

### ★ 자료 구성

#### \* 전체 커리



\* 주간 KISS EBS에는 도표, 광고, 세 문제 장문을 제외한 모든 지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선별 지문은 별표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Final KISS EBS ESSENCE에는 총 18주의 주간 KISS EBS 별표 지문에서 **올해 6, 9평을 반영**, 재검토하여 2차 필터링 및 소수의 지문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매년 150지문 내외로 구성됩니다. 문제, 지문의 교집합이 많으므로, 풀커리 구매 시 ESSENCE 가격은 **할인**됩니다.

\* 한 주 구성: 매주 연계 교재 범위의~(ex.: 1주차의 경우 수특영어 1~8강)



★ Week 1 목차 (페이지의 위 아래 각 한 쪽 기입)

Intro	• P.1~14: 커리큘럼, 구성, 참조, FAQ, 공부법
Day 1	• P.15~36: 수특영어 1~8강 中 선별 별표 문제, 별표 분석
Day 2	• P.37~56: 수특영어 1, 2강
Day 3	• P.57~86: 수특영어 3, 4강
Day 4	• P.87~110: 수특영어 5, 7강
Day 5	• P.111~124: 수특영어 8강
Day 6,7	• P.125~189: 별표 문장테스트, 별표 손해석, 1~8강 어휘테스트

정리한 어휘

지문 핵심 문장

세 줄 요약 구분

수특 영어

★ 5강 2번 제목

Though we cannot choose most of the challenges we face in life, we can choose how we're going to face them. Are we going to have a bad experience, **crumble** under the pressure, run away, or avoid challenges altogether? Or are we going to find the strength and **inner resources** to **rise to** the challenges and fully *actualize our potential*? That's the term psychologists use for becoming the person you are meant to be — **actualize** your potential. Facing your teenage years in the right way will give you this opportunity. When you face the challenges before you right now, learn from them and grow with them, you become that person. (문삽 The challenges in your life require you to **call on** the inner resources **residing** deep inside you.) By **doing that**, you come to know yourself and to develop your **innate capacities**. That is what we mean by actualizing your potential, and being challenged presents you with the opportunities to do it.

## Summary

1.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음.
2. 달아날 수도 있지만, 심리학자들 말마따나 내 잠재력 실현을 위해 맞서서 성장할 수도 있음
3. 내적 자질을 활용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내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 Shean.T's

1. 변형: 문장 삽입. 내용도 평가원이 무난히 좋아하는 내용이고, 적당히 3,4,5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점도 평가원스러운 변형이다. 3번부터는 challenges가 나오면서 내용이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읽어야 한다. 4번 뒤의 by doing that에 주목해야 한다. 앞의 주절인 'you become that person'을 받아야 하는데 become을 do로 받는 것이 참 어색하다.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 to v 부분을 문법적으로 받으면서, 내부 자질을 꺼내어 나를 알게 되고 능력을 키운다는, 내용 면에서도 매끄럽게 이어진다. 답은 4번!

ENG	Vocab	KOR
1. crumble		1. 무너지다, 바스라지다
2. inner resources		2. 내적 자질
3. rise to N		3. ~에 맞서다
4. actualize		4. 실현하다
5. call on		5. ~을 활용하다
6. reside		6. 거주하다
7. innate capacity		7. 내적 역량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정답의 근거(밑줄, 화살)

추가 단어 기재

\* 너무 잘게 나눴다는 작년 피드백을 반영해, 무난할 경우 한 덩어리로 많이 감

선T 직독직해

속발음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

손으로 선T 해석 가리고 구두해석!

KISS EBS

해석 횟수 체크

\* 최소 5번. 별표 지문은 무조건 그 이상.

Though we cannot choose most of the challenges we face in life, we can choose how we're going to face them. Are we going to have a bad experience, crumble under the pressure, run away, or avoid challenges altogether? Or are we going to find the strength and inner resources to rise to the challenges and fully *actualize our potential*? That's the term psychologists use for becoming the person you are meant to be — actualize your potential. Facing your teenage years in the right way will give you this opportunity. When you face the challenges before you right now, learn from them and grow with them, you become that person. The challenges in your life require you to call on the inner resources residing deep inside you. By doing that, you come to know yourself and to develop your innate capacities. That is what we mean by actualizing your potential, and being challenged presents you with the opportunities to do it.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도전 과제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 어떻게 마주할 지는 선택할 수 있다. / 우리는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압박에 무너지고, 달아나고, 혹은 그 문제들을 완전히 피할 것인가? / 혹은 힘과 내적 자질들을 찾아낼 것인가 / 문제에 맞서 우리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 위해? /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 - 잠재력을 실현한다. / 10대를 올바른 방식으로 마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것이다. /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에 당장 맞설 때, / 그 문제로부터 배우고 또 성장할 때, / 바로 그 사람이 된다. /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분 깊은 곳에 자리잡은 내적 자질들을 불러내길 요구한다. /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알게 되고 내적 능력을 키우게 된다. / 그것이 바로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 그리고 문제에 부딪치면 이러한 기회들이 보인다.

★ **의 의미는**

a. 당연히, 중요 지문입니다. ★★★까지 있습니다(거의 못 볼 겁니다 ㅎㅎ). 부여 기준은 ‘평가원 변형 가능성 X 난이도’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는 ‘평가원스럽게’ 변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좋고 어려운 지문도 평가원 유형 변형이 되지 않으면 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이 세 개라고 이걸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고(물론 가능성도 더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 연계로 나올 경우 EBS를 본 친구와 안 본 친구의 차이가 큼을 의미합니다. ★ 지문 개수는 보통 각 연계 교재마다(영어, 영독, 완성) 50~80개 정도입니다. 제가 노리는 변형 유형은, 가장 1순위로 ‘어휘,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2순위로 ‘흐름X’를, 3순위로 ‘어법, 지칭’을 노립니다. 이 순위는 당연히, ‘가장 크리티컬하게 도움이 되는’ 순서입니다. 어휘, 빈칸, 순서, 삽입의 경우 본인이 박세게 공부한 EBS 지문이 나온다면, 지문 당 2, 3초컷을 하게 되는데 메인 유형인만큼 그러지 않은 사람이 2, 3분이 걸리는 데에 비해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연계’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리해 풀겠지요. 흐름X 변형은 제가 두는 중요도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수능에 맞는 괜찮은 지문이면 변형에 크게 제약이 없는 ‘흐름X’ 유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직전 최종 final 선별에는 보통 세 권 합쳐 150개 지문으로 압축되며 이 ‘흐름X’ 변형 지문은, 효율성을 위해 빠질 수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빠질 경우 거의 100지문일수..).

b. 당연히, ‘별표 지문만 보면 되나요? ㅎㅎ 헤 히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볼 지문과 안 볼 지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선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매년 아깝게 놓치는 EBS 직접연계 지문이 1, 2개 씩 있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제 선별 개수를 고려했을 때 이미 효율성 甲이지만.. 올해는 스트라이크 가자!). 그렇지만 매년 제 선별 지문에서 직접연계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별표를 준 지문은 충분히 평가원의 관점에서 좋은 지문이라고 판단하고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므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 되죠. 따라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중요한 수험생의 특성상, 제 별표 지문(S, A급)을 다른 지문보다 더 어휘 챙기고, 해석 연습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발, ‘요약’만 보며 내용만 암기하는 짓은 지양하길 바랍니다. 지문 해석이 ‘주’이고, 제 요약과 변형은 ‘보조’입니다. 이 자료는 ‘영어 실력을 EBS로 늘리면서 연계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손 해석은 다 해야 하나요??**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하길 바랍니다. 별표 지문은 웬만하면 손 해석을 전부 다하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지문이 ‘속발음’으로 해석이 술술 된다면(정말 되는 건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길) 그 중 ‘잘 안 되는 문장’만 직접 손 해석 해보며 고민하고 교정하기 바랍니다. 별표 지문 외에도 본인이 해석 안 되는 지문은, 각 잡고 다 해석해봐야지요.
2. **6, 9평에 간접, 직접으로 나온 거 수능에 안 나오나요??** 평가원에서 ‘응 안 낼거야’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경험적으로’는 6, 9평에 간접 및 직접으로 나온 게 다시 수능에 직접연계 핵심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간접연계’ 지문의 경우, 좋은 지문이라면 해당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이 5%는 된다고 봅니다.
3. **단어 적으신 거 다 외워야 하나요??** 네. 제발. 단어가 총알입니다. 총알 없이 무슨 사격을 합니까.
4.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ππ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어 외우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 ‘영단어 암기’라는 것이 본인의 ‘절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친구는, 밥먹으면서도 외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보통 좋은 결과를 내더군요. 단어가 없으면 총을 쏠 수도,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5. **구문 공부 따로 해야 할까요??** 이는 썸마다 개인 차가 있으나, 저는 ‘실전파’입니다. 모의고사 3등급 이상이라면 EBS 지문을 바로 실전으로 해석하면서 ‘아 이런 패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를 계속 익히다 보면, 결국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면, 인강이나 책으로 한 번 정리하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6. **한 지문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πππ 그냥 핵심 내용만 잡고 넘어갈까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본인의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늘면, 금방 하고 넘어갑니다. 단어나 해석이 막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한 지문 당 시간을 오래 투자하며 ‘제대로’ 단어 외우고 해석 하고, 다시 그 지문을 여러 번 반복 해석하는 작업을 하며 지문들을 본다면 영어 실력이 급상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영어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계속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수박을 까서 맛있게 먹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Purpose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시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1. 매일 해당 범위의 'EBS 영어 본교재'를 풀고 채점한다.(Day 1의 경우 각 강 번호 체크하고 풀고, 이 후는 해당 범위 강에 따라 진행)

\* 너무 별표 선별 번호가 무분별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문항 번호를 따로 정리해 놓지는 않겠습니다 ☺

2. 채점 후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해석'에 초점을 두고 읽어나간다. 모르는 단어, 해석이 있으면 체크한다.(Day 2부터는 5번으로)

3. KISS EBS로 와서 별표 지문 문제를 풀고 채점한다.(only Day 1)

4. 이번엔 문제도 헛갈리거나 틀린 게 있다면 왜 틀렸는지 혼자 고민해보고, 분석 페이지 해설을 보고 논리를 이해, 체화한다. (only Day 1)

5. Once again, 분석 페이지에서 지문 '해석'에 초점을 두고 읽어나간다(어휘 보지 말고!). 모르는 단어, 해석이 있으면 체크한다.

6. 모르는 단어, 해석을 분석 페이지를 통해 익힌다. 특히 자신이 몰랐던 단어는 따로 적어 암기하고, 틈틈이 외운다.

7. 해석이 안 되었던 부분 해석을 선T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고 이를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해석에 정답은 없으므로 나중에 경지에 오르면(이미 올라와 있다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계속 학습하다 보면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 구문들을 선T가 일관되고 매끄럽게 해석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사, 어미를 잘 보자.

\* 모든 EBS 지문의 모든 문장 해석이 매끄러울 순 없다. 이것은 선T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보고 질문해도 문장 해석이 어려울 경우 문장 자체가 괴랄한 경우가 많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해당 '글' 이해이기 때문에, 선T 요약용을 통해 글의 핵심이 이해 됐다면 이 정도는 넘어가도 좋다.

\* 모든 지문은 수능 때까지 최소한 5번은 해석하라고 해석 부분 우상단에 체크 네모를 넣어 놓았다. 해당 일자에 오~래 걸쳐 한 번 제대로 해석한 뒤, 두 번 더 혼자 구두 해석을 하는 게 좋다.(그럼 이미 세 번.)

\* 등급이 낮을 수록 당연히 한 지문 분석이 많이, 많이 걸린다. 당연하다. 걸리는 단어, 표현이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쳐 계속 나오는 단어, 표현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해석, 분석이 빨라진다. 이를 견디면 영어 실력이 급상승 할 것이고, 아니라면 열심히 해도 평생 2, 3등급에 머무를 것이다.

8. 당일 모든 지문에 대한 단어, 해석 연습이 끝났으면, 이제는 빨리 할 수 있다. 다시 당일 첫 지문으로 돌아가 눈으로, 그래도 정확히, 해석을 마지막까지 꼭~ 하고 마무리 한다.

9. 평일에 Day 5까지 끝마치고 주말을 이용해 별표 지문 문장시험, 손해석(별표 지문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및 전 지문 어휘테스트를 실시하자. 특히 어휘테스트 채점 후에는 Day 1부터 5까지 꼭~ 또 구두해석 해보면, 이제 단어도 다 알고 구문도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영어 해석 '체화' 및 실력 급상승에 너무나무 좋다.

\* 어휘테스트에서 선T가 써놓은 것과 다르다고 무조건 틀린 게 아니다. '의미'가 통하는 범위에 있다면, 맞다.

10. 6, 9, 수능에서 가볍게 1등급을 맞고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후기를 쓴다. 선T가 쪽지를 보내어 스타벅스 커피를 쓸 지도!

## ★ 순차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 ★ 자연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이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무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엍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뭐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 ★ 단순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꼽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 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명심하자. 해석에 정답은 없고,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문장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핵심 위주로 해석하고,

그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글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 하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지를  
잘 판단하는  
현명한 친구들이 되자 ☺





**DAY 1**

# 별표 7문제

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Regardless, most regard literacy as essential for local languages.

Most linguists and local community members agree that education and literacy in the local language are necessary to maintain vitality, or to revitalize a language threatened with endangerment. Some local communities reject this notion, wanting to preserve their oral traditions and to rely solely on them. ( ① ) There is, however, a cost to this decision, as it limits the domains in which the language can be used. ( ② ) Yet more than half of all languages have no written form, and so a writing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m in order to use them in education and literacy programs. ( ③ ) Basic pedagogical and reference materials are needed, including textbooks, dictionaries and usable descriptive grammars. ( ④ ) Such materials are readily available for languages of wider communication, but not for the majority of local languages. ( ⑤ ) In addition, reading material is needed for literacy as well.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ile we usually think negatively of deviance, it actually can prove functional in a society. Any hostility toward deviants promotes behavioral conformity with social expectations. It strengthens group identity by separating the nonconforming from the well-behaved members centering on an agreement on the norms. We may be familiar with the phrase “the exception makes the rule.” Deviance shows us the boundary, or line, that must not be crossed, highlighting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norm but \_\_\_\_\_.

For example, if there is a rule that “food is not permitted in the classroom,” a person with the candy bar or bag of chips might not be admonished by the teacher; yet a person arriving to class with a fast-food meal experiences rebuke and ejection. Others in the class now know where the line is drawn and can adjust their patterns of behavior accordingly.

\* deviance 일탈 (행동) \*\* ejection 쫓아냄

- ① its relations to group identity
- ② the ethical principles of a person
- ③ the variability of classroom rules
- ④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 ⑤ an unambiguous definition of social norms

**DAY 1**

# 별표 분석

## Summary

1. most 언어학자: 현지 언어를 글로써 교육하는 것이 언어 보존에 중요 vs. some 현지 집단: 구두로만 보존하려 함
2. → Problem: 구두로만 하면 사용처가 제한됨 + 모든 언어 중 절반 이상이 글의 형태 없음
3. Solution: 교육학, 참고, 독서 자료를 마련해야 함!

## Shean.T's

1. **변형: 문장 삽입.** 요지 유형에서 좋은 변형을 찾기 힘든데, 평가원급에 달하는 좋은 변형이다. 이 지문이 문삽 변형으로 좋은 이유는 소위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이다. 네번째 줄부터 보자면, 몇 몇은 이를 거부하고, however 그러면 대가가 있고, 그래도 대부분은 현지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yet 대부분 글쓰기 체계가 없고.. 문삽 문장이 없다면 '문제, yet 또 문제'라는 이상한 논리 구조가 된다. 문삽 문장이 들어가야 '이거 필요함, yet 문제'가 된다. **답은 2번!**

### ENG

### Vocab

### KOR

1. a linguist
2. literacy
3. vitality, revitalize
4. threatened with
5. endangerment
6. reject a notion
7. preserve
8. domain
9. regard A as B
10. pedagogical
11. reference material
12. descriptive grammar
13. readily available
14. majority
- 15.

1. 언어학자
2. 식자(글을 읽)
3. 활력, 재활성화하다
4. ~로 위협받는
5. 멸종 위기
6. 개념을 거부하다
7. 보존하다
8. 영역
9. A를 B로 간주하다
10. 교육학의(수능에선 \*일듯)
11. 참고 자료
12. 기술문법
13. 쉽게 이용가능한
14. 다수
- 15.

Most **linguists** and local community members agree that education and **literacy** in the local language are necessary to maintain **vitality**, or to **revitalize** a language **threatened with endangerment**. Some local communities **reject** this **notion**, wanting to **preserve** their oral traditions and to rely solely on them. There is, however, a cost to this decision, as it limits the **domains** in which the language can be used. (문삽 Regardless, most **regard** literacy as essential for local languages.) Yet more than half of all languages have no written form, and **so a writing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m in order to use them in education and literacy programs.** Basic **pedagogical** and **reference materials** are needed, including textbooks, dictionaries and usable **descriptive grammars**. Such materials are **readily available** for languages of wider communication, but not for the **majority** of local languages. In addition, reading material is needed for literacy as well.

Most linguists and local community members agree that education and literacy in the local language are necessary to maintain vitality, or to revitalize a language threatened with endangerment. Some local communities reject this notion, wanting to preserve their oral traditions and to rely solely on them. There is, however, a cost to this decision, as it limits the domains in which the language can be used. Regardless, most regard literacy as essential for local languages. Yet more than half of all languages have no written form, and so a writing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m in order to use them in education and literacy programs. Basic pedagogical and reference materials are needed, including textbooks, dictionaries and usable descriptive grammars. Such materials are readily available for languages of wider communication, but not for the majority of local languages. In addition, reading material is needed for literacy as well.

대부분의 언어학자와 지역사회 일원들은 동의한다 / 현지 언어로 된 교육과 식자율이 필수적이라는 데 / 활력을 유지하고 또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다시 살리는 데 . / 몇몇 지역사회는 이러한 개념을 거부한다, / 자신들의 구두 전통을 보존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의존하길 바라면서. /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대가가 있다 / 언어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 그와 상관없이, / 대부분은 글을 아는 것을 현지 언어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 하지만 모든 언어의 절반 이상이 쓰여진 형태가 없고, / 따라서 이 언어들을 위한 쓰기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 교육과 말글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 기본적인 교육,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 교과서, 사전, 유용한 기술문법책을 포함하여. / 그러한 자료들은 더 널리 쓰이는 언어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 다수의 현지 언어에겐 그렇지 않다. / 게다가, 독서 자료도 말글 능력을 위해 필요하다.

## Summary

1. 통념과 달리 일탈은 반면교사가 됨으로써 사회 규범을 지키는 순기능을 함
2. 규범에 따라 넘어서는 안 될 선과 가능한 행동 영역을 보여줌
3. ex.: 교실에 감자칩을 들고 오는 것은 안 혼나고 햄버거는 혼난다면 구성원은 어디까지든 허용 가능한지 알게 됨.

## Shean.T's

1. **변형: 빈칸.** 무난히 괜찮다. 내신에 고급 문제로 나올만한 느낌. 글의 전반부에는 일탈이 사실은 순기능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선을 그어준다'고 얘기한다. 이를 후반부에서 예시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예시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넣는 게 좋다. **답은 4번!**

### ENG

### Vocab

### KOR

1. think negatively of
2. prove functional
3. hostility
4. conformity with
5. strengthen
6. group identity
7. separate A from B
8. center on
9. agreement
10. exception
11. highlight
12. permissible
13. admonish
14. rebuke
15. adjust

1. ~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2. (순)기능으로 판명나다
3. 적대감
4. ~에 대한 순응
5. 강화하다
6. 집단 정체성
7.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8. ~에 집중하다
9. 합의, 일치
10. 예외
11. 강조하다
12. 허용가능한
13. 훈계하다(수능은 \*일듯)
14. 꾸짖음
15. 조정하다

\* deviance 일탈 (행동) \*\* ejection 쫓아냄

While we usually **think negatively of** deviance, it actually

**can prove functional** in a society. Any **hostility** toward

deviants promotes behavioral **conformity with** social

expectations. It **strengthens group identity** by **separating**

the nonconforming **from** the well-behaved members

**centering on** an **agreement** on the norms. / We may be

familiar with the phrase “the **exception** makes the rule.”

**Deviance** shows us the boundary, or line, that must not be

crossed, **highlighting**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norm

but (**빈칸**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 For

example, if there is a rule that “food is not permitted in the

classroom,” a person with the candy bar or bag of chips

might not be **admonished** by the teacher; yet a person

arriving to class with a fast-food meal experiences **rebuke**

and ejection. Others in the class now know where the line is

drawn and can **adjust** their patterns of behavior accordingly.

While we usually think negatively of deviance, it actually can prove functional in a society. Any hostility toward deviants promotes behavioral conformity with social expectations. It strengthens group identity by separating the nonconforming from the well-behaved members centering on an agreement on the norms. We may be familiar with the phrase “the exception makes the rule.” Deviance shows us the boundary, or line, that must not be crossed, highlighting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norm but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For example, if there is a rule that “food is not permitted in the classroom,” a person with the candy bar or bag of chips might not be admonished by the teacher; yet a person arriving to class with a fast-food meal experiences rebuke and ejection. Others in the class now know where the line is drawn and can adjust their patterns of behavior accordingly.

\* deviance 일탈 (행동) \*\* ejection 쫓아냄

- ① its relations to group identity
- ② the ethical principles of a person
- ③ the variability of classroom rules
- ④ a clear definition of social norms
- ⑤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우리는 보통 일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 사실 일탈은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 일탈자에 대한 어떠한 적대감도 / 사회적 기대치에 대한 행동 순응을 증진한다. / 이는 집단 정체성을 강화한다 / 비순응자를 똑바로 행동하는 구성원들과 구분함으로써 / 규범과의 일치에 집중하는. / 우리는 아마 “예외가 규칙을 만든다.”와 같은 말에 친숙할 것이다. / 일탈은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하는 한계선을 보여준다 / 규범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동 영역을 강조하면서. / 예를 들어, “음식 교실 반입 금지”라는 규칙이 있다면, 캔디바나 감자칩 봉지를 들고 오는 사람은 짬이 훈계하지 않을 수 있다; / 하지만 패스트푸드를 들고 교실에 오는 사람은 꾸지람을 듣고 쫓겨 난다. / 교실의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한계선이 어딘지 알고 / 자신의 행동 패턴을 그에 따라 맞출 수 있다.

- ① 그것의 집단 정체성과의 관계
- ② 한 사람의 윤리 원칙
- ③ 교실 규칙의 가변성
- ④ 사회 규범의 분명한 정의
- ⑤ 행동에 대한 상대적 허용 범위

**DAY 6, 7**

# 별표 문장테스트

문장 당 30초, 총 3분 30초!

1. Yet more than half of all languages have no written form, and so a writing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m in order to use them in education and literacy programs.
2. Deviance shows us the boundary, or line, that must not be crossed, highlighting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norm but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3. A badly designed measurement or reward system mutes the rest of the rules, even if optimally designed.
4. That is what we mean by actualizing your potential, and being challenged presents you with the opportunities to do it.
5. We must try and discover the mechanisms that drive nature's incessant creation of organisms without piling up mountains of waste.

1. Yet more than half of all languages have no written form, and so a writing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for them in order to use them in education and literacy programs.

하지만 모든 언어의 절반 이상이 쓰여진 형태가 없고, / 따라서 이 언어들을 위한 쓰기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 교육과 말글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2. Deviance shows us the boundary, or line, that must not be crossed, highlighting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norm but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일탈은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하는 한계선을 보여준다 / 규범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동 영역을 강조하면서.

3. A badly designed measurement or reward system mutes the rest of the rules, even if optimally designed.

잘못 설계된 평가 혹은 보상 체계는 다른 규칙 체계를 약화시킨다, / 최적으로 설계되었을지라도.

4. That is what we mean by actualizing your potential, and being challenged presents you with the opportunities to do it.

그것이 바로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 그리고 문제에 부딪치면 이러한 기회들이 보인다.

5. We must try and discover the mechanisms that drive nature's incessant creation of organisms without piling up mountains of waste.

하지만 모든 언어의 절반 이상이 우리는 그 메커니즘들을 시도하고 발견해야 한다 / 자연의 끊임없는 유기체 생성을 쓰레기 더미를 만들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DAY 6, 7**

# 별표 손해석

실력에 따라, 한 지문 당  
5~10분!







**DAY 6, 7**

# 전 지문 어휘테스트

Around 20분!

주간지가 너무 두꺼워지는 걸 막기 위해 어휘 정답을 뒤에 넣지 않았습니다.  
순서는 동일하니 앞 쪽 지문의 어휘 칸을 참고해주세요 ☺

- |                         |                        |
|-------------------------|------------------------|
| 1. a linguist           | 1. think negatively of |
| 2. literacy             | 2. prove functional    |
| 3. vitality, revitalize | 3. hostility           |
| 4. threatened with      | 4. conformity with     |
| 5. endangerment         | 5. strengthen          |
| 6. reject a notion      | 6. group identity      |
| 7. preserve             | 7. separate A from B   |
| 8. domain               | 8. center on           |
| 9. regard A as B        | 9. agreement           |
| 10. pedagogical         | 10. exception          |
| 11. reference material  | 11. highlight          |
| 12. descriptive grammar | 12. permissible        |
| 13. readily available   | 13. admonish           |
| 14. majority            | 14. rebuke             |
| 15.                     | 15. adjust             |

1. establish rewards	1. crumble
2. drive performance	2. inner resources
3. meet budget	3. rise to N
4. invest	4. actualize
5. pose chance	5. call on
6. block motivation	6. reside
7. radical	7. innate capacity
8. appetite	8.
9. overdose	9.
10. frustrate	10.
11. blind to N	11.
12. ex(im)plicitly	12.
13. measurement	13.
14. mute(v)	14.
15. optimally	15.

# End of Week 1

Q&A: [shaanlee23@gmail.com](mailto:shaanlee23@gmail.com)

